

시페퍼스, 약팀 꼬리표 지웠다… 리그 2위 재탈환

흥국생명 꺾고 시즌 5승째
흥경기 4연승 상승세 지속

시마무라 25득점 ‘맹활약’
“범실·서브는 재정비 필요”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돌풍이 2라운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올 시즌 1라운드에서 4승 2패를 기록하며 이번을 일으킨 AI페퍼스가 지난 13일 흥국생명 배구단과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첫 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 (25-22 23-25 28-26 25-23)로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AI페퍼스는 5승 2패 승점 13점을 기록, 리그 2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다. 또 올 시즌 홈 4경기에서 연달아 승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AI페퍼스는 외인 조이가 팀 최다 33득점(공격성공률 46.97%)을 올렸다. 특히 아시아쿼터 시마무라는 블로킹 5개를 포함 총 25득점(공격성공률 68.97%)을 올리면서 올 시즌 첫 20점대 득점에 성공, 승리를 이끌었다.

경기는 치열했다. 1세트와 2세트를 각각 나눠 가진 팀의 승부처는 3세트. AI페퍼스는 중반까지 잇단 범실과 함께 팀 수비가 흔들리면서 상대에게 리드를 내줬다. 그대로 무너지는 그림이었으나 AI페퍼스의 집중력이 빛났다.

조금씩 추격에 성공했고, 듀스 승부 끝에 극적인 역전을 이뤄낸 것. 기세를 탄 AI페퍼스는 4세트마저 가져오면서 승리를 확정 지었다. 팀 범실은 25개로 상대보다 11개나 많았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었다.

창단 후 지난 시즌까지 만년 최하위를 면치 못했던 AI페퍼스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걸까.

장소연 AI페퍼스 감독은 “선수들이 매 경기 위



흥국생명 배구단과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첫 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 (25-22 23-25 28-26 25-23)로 승리한 AI페퍼스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KOVO

를 잘 극복하고 있고, 그것이 승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흥국생명전은 어려운 경기였는데 승부처에서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총평했다.

그는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감독은 “선수들이 코트 안에서 받고 때리는 것이 매끄럽지 않다. 특히 전체적으로 서브 범실이 너무 많았다. 선수들이 서브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면서 “이 부분은 확실히 재정비가 필요하다. ‘조금 더 자신 있게 서브해라.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해야 할지, 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매 경기 맹활약하고 있는 시마무라에 대한 칭찬도 빼놓지 않았다. 장 감독은 시마무라에 대해 “스텝과 스윙이 너무 좋다. 시마무라를 어떻게 더 잘 살릴 수 있을지 영상을 보고 있고, 어떤 플레이를 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본인 스스로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팀 리스브가 된다면 그런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생애 처음으로 20점대 득점을 올린 시마무라는 실제 어떤 공이 올라오든 자신만의 공격을 해낸다.

이에 시마무라는 “일본에서도 이 정도 득점을 한 적이 없어서 실감이 안난다”면서도 “100% 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뛰다. 그러면 볼을 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볼이 네트 위에만 있으면 득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는 편이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백업 세터 박수빈의 활약 또한 돋보였다. 3세트 박사람이 흔들리자 4세트를 박수빈이 투입됐고, 효과적인 볼 배합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장 감독은 “수빈이가 들어가면 스피드는 떨어지

더라도 볼을 세우는 게 좋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조이와도 타이밍이 잘 맞다”면서 “박사람과 박수빈 두 선수 모두 잘하는 것이 좋다.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들려줬다.

박수빈은 “(사람) 언니가 안 되는 상황에 믿고 맡겨주시는 거라 내가 최후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들어간다. 부담감은 없다. 내 자리를 쉽게 내주고 싶지 않다”면서 “최대한 많은 경기를 뛰는 게 목표다. 선발로도 출전하고 싶다. 토스를 기본으로 블로킹과 서브 등을 개선하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한국 리커브 여자양궁,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

김수린·남수현·장민희 ‘합작’
대만 6-0 완파하고 정상 올라

한국 여자 리커브 양궁이 ‘2025 아시아양궁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김수린(광주시청), 남수현(순천시청), 장민희(인천시청)으로 팀을 꾸린 한국 여자 리커브 대표팀은 최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끝난 대회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대만을 6-0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이번 대회 리커브 종목에 올해 국가대표 최종 평가전을 통과하지 못한 2진을 파견했고, 다른 리커브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추가하지 못했다.

장지호(여천군청), 김예찬(코오롱), 서민기(국군체육부대)가 출전한 남자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에 4-5로 패해 준우승했다.

혼성 단체전에서는 장민희와 서민기가 동메달을 건져 올렸다.

여자 개인전에선 남수현이 은메달을, 남자 개인전에선 서민기가 동메달을 따냈다.



한국 여자 리커브 대표팀은 최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끝난 대회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대만을 6-0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왼쪽부터) 남수현, 김수린, 장민희.

리커브 대표팀이 이번 대회 따낸 메달은 금메달 2개를 쟁겼다. 동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다.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이은호(한국체대)가 베테랑 최용희(현대제철)를 물리치고 우승의 영예

를 안았다. 최용희는 개인전 은메달에 더해 김종호(현대제철), 이은호와 함께 나선 남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수확해 모두 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여자 대표팀의 오우현(전북도청), 박예린(한국체대), 박정윤(창원시청)은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에 234-236으로 저 준우승에 머물렀다.

혼성 단체전에서는 김종호와 박예린이 3위 결정전에서 카자흐스탄을 156-155로 물리치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두 종목을 합쳐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수확한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낸 인도에 밀려 종합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인도는 그간 강세를 보인 컴파운드(금 3·은 2)는 물론이고 리커브(금 3·은 1·동 1)에서도 강세를 보이며 한국 양궁을 긴장하게 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도장애인체육회, 생존수영 교육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대상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 아동들의 안전한 성장과 자존감 회복을 돕는다.

16일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목포시가족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됐으며, 다문화와 장애라는 복합적 요인을 지닌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영 교육으로 진행된다. 아이들은 물에서의 신체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포래와외의 유대감을 높이는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참여 아동들은 언어·정서·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신체적 장애로 인해 포래 관계 형성이나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아동들이 물속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임진철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다문화가정 장애아동들은 사회적 지원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교육이나 체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돼 왔다”며 “이번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지역사회가 함께 포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 지원에 앞장설 방침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양여고는 최근 경남 함천군에서 열린 '2025 추계 한국여자축구 연맹전'에서 고등부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 축구 꿈나무, 전국여자축구연맹전 두각

광양여고·광양중앙초 나란히 우승·준우승 차지

광양지역 여자축구 유망주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전남 여자축구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16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경남 함천군에서 열린 '2025 추계 한국여자축구 연맹전'에서 광양여고가 고등부 우승을, 광양중앙초가 초등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여고는 이번 대회에서 예선 2승 1패로 8강에 진출한 뒤, 인천디자인고를 5-0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는 경남로봇고를 1-0으로 제압했으며, 결승에서 지난해 우승팀 포항제철여고를

2-0으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광양중앙초는 1조 1위로 8강에 올랐고, 대전 천동초를 6-0으로 제압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는 강릉FC U-12 위민을 상대로 후반 추가시간에 2골을 넣어 3-3을 만들고, 승부차기에서 3-2로 승리했다.

결승에서는 전주남강초와 접전을 펼쳤으나 경기 종료 직전 실점으로 0-1 패하며 준우승을 기록했다.

올 시즌 두 팀은 주요 전국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기록해왔다. 광양여고는 올 시즌 여왕기와 전국여자축구선수권에서 잇따라 준우승

을 차지하고 전국체전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추계연맹전 우승까지 거두며 전국 정상급 전력을 입증했다.

광양중앙초 역시 춘계 준우승, 여왕기와 전국여자축구선수권 우승, 전국소년체전 동메달, 그리고 이번 추계연맹전 준우승 등 안정적인 성적을 이어가며 초등부 최상위권 전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신정식 전남도축구협회장은 “두 팀의 투지와 경기력은 전남 여자축구의 저력을 보여준 성과”라며 “유소년·여자축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광양여고와 광양중앙초 선수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전남 체육 꿈나무들이 더 큰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